한경직, 곽선희, 제3의 길

(롬14:12~23)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한경직, 곽선희, 제3의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다 보니까, 존칭을 나타내는 어미를 제가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경직 목사님, 곽 선희 목사님 그리고 이 두 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 말고, 제3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4세기에 교부이신 성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참 기가 막히고 통쾌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유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

라'는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소원과 뜻과 계획을 따라 마음대로 하라.
아! 참 정말 경지에 이른 분이 선언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
이러한 어거스틴이 말한 이 복음을 통한 자유를, 저는 체험적으로 두 분 스승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분 스승이 바로, 한 경직 목사님이시고 곽 선희 목사님이세요.
정말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이, 그분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유함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의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통쾌함과 정말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경직 목사님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신앙적 자유,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듯이 그분의 청렴하심과 검소하심입니다.
청렴과 검소를 넘어서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의 마음은, 어거스틴이나 프란체스코와 견주어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인들이 양복을 사 드리잖아요? 그 다음 주에 새 양복을 입고 나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 이전 양복을 그대로 입고 계십니다.
길을 지나가시거나 교회 앞마당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남루한 사람이나 거지를 보시게 되면, 그 선물 받으신 양복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십니다.
이러한 일화가 한 경직 목사님의 일생에는 수도 없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뵈었을 때도, 대한민국 기독교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특별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뒤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개신교의 목사님이셨어요.
가톨릭에 김 수환 추기경이 계셨다 그러면, 개신교에는 한 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신교의 목사님.
그런 분이 남한산성에서 삶을 마치시던 그 공간을 가서 접했을 때는, 그냥 오두막이에요 오두막,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도저히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

영락교회에서 담임목사님으로서 은퇴하신 뒤에, 개신교의 목사님으로서 삶을 사시던 그분에게 주어진 명성과 신분과 위치에 비해서, 그분의 실제 삶의 검소함과 청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고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로부터, 복음으로 자유 하시다는 것을 아주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에요.
이렇지 못한 게 참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울 뿐이지요.
그런데 곽 선희 목사님은, 또 다른 복음이 주는 자유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참 독특한 분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접할 때는 한 경직 목사님에게선 힘이 있고, 복음의 힘이 그분을 밀어내는 듯한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 강렬함에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곽 선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의 그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고, 감탄을 느끼게 되고, 정말 마음에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큼이나 삶도 독특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목사님들 사회에 볼링을 유행시키신 선두주자이십니다.
몇 억이 되는 외제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시고 계셔서 구설수에 오르신 적도 있습니다.
한 번 놀란 것은,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분이 동기 목사님이셔서, 그분이 제가 유학을 끝내고 왔을 때 곽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려고 주선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 하면, 강남에 있는 볼링장으로 갔어요.
볼링장에 갔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 분과 같은 레인을 쓰면서 볼링을 치십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됐을 때는, 그 여자 분과 함께 손뼉을 마주치고, 그리고 옆에는 신일교회, 그 당시 신일교회 담임을 하시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스스러움이 없으세요.
여자 분, 분명히 사모님은 아니신데 여자 분과 함께 맞장구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볼링을 치고 웃고 자유롭게 경쾌하게 볼링을 치시는 모습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많은 부목사님들을 다 동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참석했는데(그 볼링장에), 그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리에 붕어찜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여자 분 권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직접 모시는 자동차에 같이 승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 놀라운 기회이지요, 이 촌뜨기 목사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외제차에요.
거기에 조수석에 저를 앉히십니다, 권사님은 뒤에 앉으셨어요.
권사님이 동승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 이 외제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그 차를 모시는 목사님

을 옆 눈으로 힐끗힐끗 바라봅니다. '도대체 이 분은 어떤 분일까?'
제가 학생시절에도 만났어요.
학생회 일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부흥사경회 강사를 선정할 때, 제가 직접 가서 곽 선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는 차를 옆에 타고 있고, 그 권사님은 누구인지도 아직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참~ 차를 좋아하십니다, 그 엑셀을 밟을 때에 차가 뛰쳐나가는 그 속도, 이런 것을 참 예민하게 느끼시면서 즐기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랍니다.
붕어찜이 유명한 식당인 거 같아요. 넓고 넓은 운동장 같은 그 식당 홀에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들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쫙~ 길게 상을 늘어놓고 앉았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곽 목사님이 맥주를 시키십니다.
저는 못 마셨어요, 가슴이 떨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 곽 선희 목사님을 볼까 싶어서.

주초 문제는 제가 안 하고,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마음속으로 주초 문제가 죄악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니까 저는 곽 선희 목사님의 신앙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탁월한 은사를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곽 선희 목사님이 맥주를 마신다고 비난 할까봐, 제 웃저고리를 벗어가지고 가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도 그때 장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적어도 제가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는 한, 그것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맥주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 같은 쫌팽이 목사들은 흉내도 못 낼 일이에요, 그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누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외제차?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사치함을 생각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기계를 좋아하시고, 차를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미는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즐거움은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다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신앙인의 자유와 배려에요.
동료 신앙인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자유의 표현이 변수로 작용해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주제입니다.
'자유하라, 그러나 배려해라!' 이것이 주제에요.
이 배려차원에서 볼 때, 한 경직 목사님의 자유하심과 곽 선희 목사님의 자유하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한 경직 목사님의 그러한 청렴하시고, 검소하시고, 구제를 즐겨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내 것으로 잡지 않으시는 그러한 자유함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한 모습에서 나오는 그분의 행위가 참 어마어마하게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외식의 길을 걷게 합니다.
분명히 한 경직 목사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외식의 길을 걷게 하는, 외식의 길은 뭡니까? 한 경직 목사님 이후에 모~든 목사님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판단 받고 있는 그 이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 한 경직 목사님이 살았던 삶의 외형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난도질을 해 버리는 교인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식하는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못살면서, 한 경직 목사님의 삶이 판단의 기준이고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한 경직 목사님의 삶을 보고 칭찬하던 모든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사들이 돼버린 것이에요.

곽 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똑같이 필요한 것을 사용해도 좀 더 편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서서 사치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치한 것을 넘어서서, 사치의 극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참석한 부목사님들과, 다른 교회의 볼링을 참석할 정도로 곽 선희 목사님을 좋아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의 성공은, 외제차와 볼링과 맥주를 공개적으로 마실 수 있는 자유함, 그 누구도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무의식중에라도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배려 차원에서 보면 제3의 길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의 길이 뭐겠습니까?
외형적인 삶으로는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외제차 타고 싶어도, 그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성공한 목사의 이미지가 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 마요!
공개적으로 맥주를 마신다고 내 신앙에 꺼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맥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에서 이슈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서 나의 전설을 만들지 않고 나의 신화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배려입니다.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면 적당한 차를 타세요.
임 영수 목사님이 한 경직 목사님과 비슷해요, 아반떼를 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외제차를 타지도 마세요.
외제차도 뭐 외제차 나름입니다만, 이슈를 만들지 마요.
사람들의 마음과 신경을 나의 삶의 외형에 갖다가 끌어당길 일을 만들지 않는 그 제3의 길이 좋다 이겁니다.

곽 선희 목사님의 자유하심에는, 오늘 성경말씀에 이런 구절을 갖다 붙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를 먹는 것, 우상제물로서의 고기를 먹는 일에 마음에 걸려하는 형제 앞에서,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의 장소로 믿음으로서 내가 얻게 되는 은혜와 구원과 은총의 내용물을 보면,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 마음에 듦으로서, 마치 그 회사의 사장님이 '너 꼭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라고 해서 입사할 때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들어' 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고, 마음의 평강이 돈이 많아서 안정된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고, 기쁨도 이 세상에 먹을 게 맛있어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타서도 아니고, 볼링에

서 스트라이크해서도 아닌 하늘에서부터 오는 희락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외제차를 타지 않는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볼링을 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얻게 되는 구원과 은혜는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될 희락과 기쁨과 평강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에 관한한 배려하라는 얘기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한 경직 목사님도, 내 마음에는 좀 그 거지에게 옷을 벗어 주고 싶으셔도 눈에 띄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목사님이 계셔도, 그런 마음이 있는 장로님이 계셔도, 눈에 띄지 않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외형적인 삶이 이슈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오직 그냥 목사님들을 위하면 그분의 말씀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들의 외형적인 삶이 이야기되는 것은, 목사님들 자신들이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만큼의 양쪽의 자유를 누릴만한 신앙도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들한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맥주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려해서 그래요?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욕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안 마시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게 두려워서, 그들이 나를 욕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고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곽 선희 목사님만큼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5~6억짜리 외제차를 아무나 타고 다닙니까?
우리 같은 작은 목사들은 다른 사람이 비난할까봐서라도 못 타지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이거에요.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5~6억 되는 차를 주실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대단한 자유인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공한 목사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외제차를 보고 있고, 사치함을 보고, 목사의 이미지에 사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면, 그 정도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정도의 배려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려가 안 되면,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가느냐?
혹시 저 분이 저런 걸 소유하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여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조차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지요?

어렵지만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하늘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지요.
불가능한 것을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3의 길, 정말 배려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3의 길,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배려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자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온전하게 누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자유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만큼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닌 줄을 아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므로, 언젠가는 자유함의 극에 이르며 그것이 또한 배려의 차원으로 돌아설 수 있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